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 히브리서, 6회, 히브리서 5:1 1-6:20: 뒤돌아설 수 없음

© 2024 데이비드 데실바 및 테드 힐드브란트

히브리서 5:11에서 저자는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한 그의 설명의 전진을 멈추고 종종 여담이라고 불리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여담은 설교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인 5:11에서 6:20에서 저자는 다시 청중에게 그들 앞에 있는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그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11에서 6:3은 다소 복잡한 논증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저는 서두에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5:11-14는 듣는 사람들을 약간 흔들기 위해 저자가 전개해 온 주장을 방해합니다. 그는 설교자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심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합니다. 그는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삶에 통합하지도 않았고 서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된 책임을 다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유발하려는 이 간략한 시도 후에 히브리서 6:1에서 그들의 회심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여행한 여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인내를 제안합니다.

설교자는 이어서 이 설교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되는 구절 중 하나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은 그가 제안하는 행동 방침을 받아들이고, 완성, 성숙, 완벽을 향해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중에게 이미 주신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엄청난 배은망덕함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의 경험을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진노의 경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6:9-12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서로에게 투자하여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좋은 보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좋은 땅을 본받았으므로, 듣는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것으로 재빨리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러한 행동 과정을 계속하려는 그들의 헌신을 굳건히 합니다. 설교자가 이 설교의 이 부분에서 청중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어떤 종류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비열하거나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배은망덕하거나 믿음직한 사람이 될 것인가? 당신은 계속해서 열매 맺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받을 만한 합당한 수혜자로서 앞으로 올 더 큰 은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불쾌하고 심지어 해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땅이 될 것인가? 이 여담의 마지막 부분인 6:13-20에서 저자는 주요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의 주요 사례인 아브라함의 예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6:12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예를 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큼니다.

설교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에 초점을 맞춘 다음, 믿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가진 소망에 관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또 다른 맹세를 애매하게 언급하는데, 그는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청중을 5장 10절의 주제로 다시 데려가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로 이끌며, 설교자가 이 전략적 여담을 그만둔 바로 그 지점으로 설교를 돌려보냅니다.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서 저자는 회중을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그의 설교의 논제 진술을 다시 언급했는데, 사실상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은 길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듣는 데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는 때가 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며,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을 위한 것이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고상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여기서 청중에게 다소 직접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합니다. 내가 말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듣는 데 게으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교사가 되어야 하지만, 당신은 다시 당신에게 기본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성숙함이 후퇴하거나 처음부터 결코 성장하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당신은 단단한 음식보다는 우유가 필요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언어, 특히 계속하라는 권고, 받은 것에 따라 살라는 권고에서, 그리스-로마 철학 담론에서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어린아이와 성인, 젖과 단단한 음식이라는 은유를 매우 좋아하며, 청중에게 배운 것을 구체화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씁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최선을 요구하고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기 위해 이성을 신뢰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릴 것입니까? 당신은 필수적인 교리를 소개받았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타날 때까지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을 왜 미루십니까? 당신은 이미 어른이고,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진보에 바칠 어른이 되었다고 결정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젖을 떼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의향이 없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에픽테토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러한 은유를 사용하여 청중이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저자가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성숙함을 증명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교사로서 기능하여 동료 신자들에게 세계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받아들이는 헌신을 강화하는 것을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또한 고귀한 것과 천박하거나 사악한 것을 올바르게 구별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고귀한 것, 모든 상황에서 고귀한 행동 방침을 선택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목회적 맥락에서 이 설교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 측면에서 일시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유대감을 어기기보다는 항상 신성한 후원자를 존중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섹션의 목표와 온건한 수치심 전술은 수신자들이 성숙한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고 싶어하게 하고, 그들이 실제로 성숙하고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로 이끌고, 심지어 자매와 형제가 그렇게 근거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6장의 서두에서 저자는 영적으로 느린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길을 설명합니다. 그는 6:1에서 행동 방침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를 뒤로 하고 우리 여정의 종착지까지 나아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그는 청중들에게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거나, 교회의 집회를 버리는 것과는 반대로 헌신의 길로 전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2 절과 그 이후 구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촉구하면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와 안수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세계관에 대한 이러한 강렬한 사회화, 저자가 수신자들이 우리의 서두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받았다고 알고 있는 기독교 집단의 정신을 조사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그들 뒤에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그것이 지금도 그들의 여정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그들이 배운 것에 따라 살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미묘한 if 절을 통해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여정의 진전과 여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호의적인 성향이 필요하다면, 은인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의 호의에서 멀어지는 것은 가장 부적절한 행동 방침이 됩니다. 저자는 바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엄숙한 경고와 함께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고 자체는 저자가 6장 1절에서 방금 촉구한 행동 방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4절의 시작 부분에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접속사 for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단어 gar가 있는 것은 이 문단이 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반대의 주장입니다. 즉, 설교자는 청중에게 여정의 끝까지 태어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줌으로써 그 행동 방침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를 해치고, 그를 대중의 수치에 내세운 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회개의 시작점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많은 논의에서 문제 중 하나는 해석자들이 여기 있는 개인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묘사해야 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해야 할지, 아니면 실제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그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는지 결정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원을 앞으로 있을 일의 관점에서 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여기서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개인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은 개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는 신약에서 복음 메시지를 받고 듣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 선교에서 종교적 경험의 두드러진 측면이었던 성령을 받은 것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2장, 또는 히브리서 2장 3~4절의 설교에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았고, 아마도 성령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앞서 언급한 구절에서 명확히 상기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깨달음을 얻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진 자로 지칭하기 위해 그리스어에서 복수 분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다양한 혜택과 또한 그러한 혜택의 풍부한 공급에 대한 인상을 줍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관대함의 정도와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은총을 통해 그들의 감사를 키우신 보살핌과 끈기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관대함이 이 청중과 함께 만들어낸 후원자-고객의 유대감의 의무를 회피하는 불명예와 불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연히도, 여기서 저자의 언어의 많은 부분은 구약성서 본문과 크게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고, 당신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는 시편 34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한 것과 공명합니다.

주님이 선하심을 맛보고 보십시오. 이처럼 값진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불명예를 안겨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불의이며, 일반적으로 미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회 of 호의. 예를 들어, 기원후 50년에서 기원후 120년 사이에 살았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디오 크리소스톰의 글에서, 모든 사람은 후원자를 존중하는 사람을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후원자를 모욕하는 사람은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읽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지만, 여론의 공적 법정과 자신이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힌다는 자신의 의식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디오의 다른 글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면 당신은 배은망덕한 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혐오스러운 특성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중의 증오보다 더 큰 처벌이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자의 처벌은 그가 누구에게서든 혜택을 감히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혜택을 주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눈에 표적이 되거나 적어도 자신이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하고 즐거운 경험에 대한 모든 지각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부정직한 상인과 두 번 거래하거나 첫 번째 예치금을 잃은 사람에게 두 번째 예치금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미래의 호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디오 크리소스톰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러한 대중적 감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히브리서의 수신인들도 공유했을 것이고, 이는 누군가가 겔치레와 모욕을 하며 고귀한 베푸는 자에게 대중적 수치를 안겨준 후에는 그러한 호의를 얻을 두 번째 기회가 불가능하다는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수신자들이 여정의 끝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한다면, 그들은 후원자에게 공개적인 불명예를 가져오고 그의 값비싼 선물에 대한 경멸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집단에서 이웃의 품으로 이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웃에게 예수님의 중재와 혜택이 그들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만큼 가치가 없으며 인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환영받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증거입니다.

설교자는 전략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그러한 증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를 해치고 대중의 경멸을 받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예수와 예수의 백성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베푸는 자에게 큰 은사를 받고 큰 대가를 치렀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6장 4~6절의 강렬한 경고를 히브리서 6장 7~8절의 유추적 논증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유추적 논증을 위해 그는 농업의 영역으로 옮겨가 농부들이 해야 하는 일반적인 관행과 그들이 땅에 그런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식물을 맺는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다면, 그것은 쓸모없고 저주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끝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저자는 이 언어의 자료로 여러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주와 관련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의 타락 이야기에서 원시적 저주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대조는 구약성경 전체, 특히 신명기에서 동일한 것에 대한 대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언약의 책에서 우리는 저주와 축복에 대해 읽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축복은 당신이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주 당신의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것이고, 저주는 당신이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 비유는 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 지속적인 충성심, 아들에 대한 감사가 축복받은 운명을 가진 사람과 저주받은 운명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또한 상호성의 사회적 맥락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는 텍스트와도 상당히 강하게 공명합니다.

세네카와 같은 작가는 그의 책인 *혜택에 관하여*에서 혜택을 주는 것과 혜택을 줄 때 기대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농업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세네카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내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맥락상, 세네카는 주어진 혜택이 항상 혜택을 받고 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을 항상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씨앗과 낱고 비생산적인 땅을 뿌리지 않지만, 우리의 혜택은 차별 없이 주거나 오히려 버립니다. 같은 책의 후반부에서 세네카는 농부조차도 자신의 씨앗을 모래에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혜자가 감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기다리지 않고, 그럴듯한 진실이 보여주는 길을 따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수확을 약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씨를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노동을 끝내면 뿌린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보살핌을 거친 후에야 작물이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경작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는 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혜택의 경우에도 같은 진실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네카는 후원자들이 그러한 관계에서 추구하는 충성심과 감사를 키우기를 바란다면 호의로 고객을 계속 육성하도록 격려합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헬레니즘 유대교 텍스트에도 나타납니다.

약물 문장의 알려지지 않은 저자는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바다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저자가 땅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재배하는 이미지를 수혜자를 대하는 베푸는 사람의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양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더 높은 토양입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관계에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4~8의 역학과 강하게 공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신자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선물을 풍성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좋은 농부처럼 자신을 투자하여 씨앗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주고, 돌보고, 키우고, 어린 묘목을 돌보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자가 여기에서 고안한 비유는 또한 흥미로운 방식으로 구약성경의 또 다른 본문, 즉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와 공명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과 포도원에 투자한 시간, 자원,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잘 관리된 포도원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물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나쁜 포도를 맺었다고 불평합니다. 포도원 관리자의 반응에 따른 포도원 파괴는 이사야의 본문에서 급진적이고 최종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는 하나님의 보살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정의의 수확을 기대하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신, 포도원에서 폭력과 억압이 솟아오르도록 내버려둔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의 백성 가운데 정의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모욕했으며, 신의 형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그의 돌봄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자의 청중은 히브리서 6, 7, 8장의 농업적 비유의 요점을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개종자들에게 자신과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투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 맺어야 합니다.

저자가 쓰듯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설교자가 7~5절에서 언급한 혜택의 물결을 떠올리며,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식물을 맺는 땅은 저자가 다음 구절인 9~12절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땅, 각 듣는 사람의 토양을 경작하고 계시지만, 물론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 사회에서 각 듣는 사람의 자매와 형제의 이익을 위해서만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9절과 10절에서 이것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그들의 투자는 그들 스스로가 경작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대신 여론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복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은 설교자가 말했듯이 그러한 토양의 끝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엄중한 경고에 바로 이어 저자는 9절에서 12절까지 재앙 대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하여 더 나은 것들, 구원을 보장하는 것들을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말입니다.

저자는 청중에 대한 이러한 확신의 진술로 그의 엄중한 경고를 이어가면서, 예를 들어 Rhetorica 로 알려진 대중 연설에 관한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수사학자들에게 주어진 좋은 조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헤레니아 . 기원전 1세기의 이 텍스트에서 우리는 정확히 이 조언이 주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종류의 솔직한 말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면, 완화책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후에 이런 종류의 것을 즉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의 미덕에 호소합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를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의 옛 습관을 말하는데, 솔직함으로 인해 일어난 감정을 칭찬이 가라앉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찬양은 듣는 사람을 분노와 성가심에서 해방시키고, 솔직함은 그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히브리서 6:4-12에서 성취한 것입니다. 6:4-8에서 그들의 상황의 위험성에 대한 솔직함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만, 9-12절의 안심은 또한 듣는 사람을 확신의 자리, 설교자와의 연대의 자리, 설교자가 5:11-14에서 그들을 질책하고 엄중한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실제로 그들을 가장 잘 생각한다는 감각으로 회복시킵니다.

저자의 확신에 대한 표현은 6:4-8에서 두려움에 대한 호소와 번갈아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서 4장 12-13절에서 두려움에 호소하는 동일한 번갈아가기를 관찰했고, 4장 14-16절에서는 확신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9-34절에서도 동일한 번갈아가기를 다시 볼 것입니다. 확신과 두려움은 저자가 청중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인내, 충성, 감사의 응답에 공감하도록 계속 촉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적용하는 두 가지 감정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방금 묘사한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듣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느님께, 여러분이 그의 이름으로 보인 일과 사랑을 잊는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같은 열심을 끝까지 보여 희망의 꽃이 만발하도록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듣는 사람이 이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지금도 계속 섬기면서 보여줬던 일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종자에게 그토록 많은 은사를 쏟아주신 이들을 위해 적합한 수확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투자와 은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보답의 표현의 일부였습니다.

이것들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투자와 실천, 즉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청중에 대해 존중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행동 과정에서 그들의 과거 진전을 확증함으로써 두려움에 호소한 후에 가장 환영받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계속해서 섬기는데 보인 사랑을 고집하도록 격려합니다. 저자는 이 시점에서 청중들에게 들은 것에 대한 반응에서 느긋해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저자가 이 설교에서 그들에게 전하는 더 직접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과 관련하여 느긋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1에서 12:3에 나올 믿음의 놀라운 모범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렇게 인내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묘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에 대한 이 언급은 또한 6장 13절에서 20절에 이어지는 전환 단락으로 이어지는 편리한 서두이기도 한데, 이 단락은 믿음과 인내의 모범이자 신성한 약속의 유명한 수혜자인 아브라함에 대한 고찰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저자는 청중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여정의 끝까지 자신 있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단락의 핵심 요점은 청중에게 그들이 받은 메시지의 신뢰성과 그들이 신뢰하는 중재자의 신뢰성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그 중재자 뒤에 서 있고, 예수님의 신권이 예수님의 의뢰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혜택을 보장하는 효능을 보장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맹세를 어떻게 주셨는지 고려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으시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버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설교자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언급하고 부분적으로 낭송하는데, 우리는 그 구절에서 이 맹세를 더 자세히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고 네 아들,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다음 구절에서 설교자는 인간 영역에서의 맹세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을 계속합니다. 인간은 더 위대한 누군가에 따라 맹세하고 맹세는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맹세에 대한 이 일반적인 관찰은 맹세가 말이나 증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맹세는 법정에서 증거의 한 형태로 자주 사용됩니다. 서기 1세기 전반의 다작한 유대교 주석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맹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확인되고, 확신이 없는 것은 맹세를 통해 확인을 받습니다.

이제 청중은 인간이 때때로 맹세를 기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맹세는 확실히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수신자는 신이 맹세할 때 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를 꺼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전에 거론된 광야 세대의 예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신뢰할 수 없음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맹세를 하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맹세는 기만적인 말의 가능성 때문에 행해지지만, 맹세 없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창세기 22장을 주석하면서 이 문제를 인식했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쉽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맹세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음을 더욱 보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않는 일을 통하여 도망하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을 강한 확신을 갖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자가 여기서 언급하는 약속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언급된 약속으로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교자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함을 생각할까 두렵구나.”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는 신성한 영역, 즉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영역으로 영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자가 언급하는 맹세는 시편 110편 4절의 맹세입니다. 저자는 이미 이 구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구절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을 낭송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맹세하셨고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사실, 저자는 히브리서 7장 21절까지 이 구절의 일부를 낭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듣는 사람들이 시편 95편의 약속과 시편 110편의 맹세라는 두 가지 신성한 신탁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신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도망친 우리”라는 말로 청중과 자신을 전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회중, 특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더 큰 사회에 재진입할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치 큰 위험에서 벗어나듯이 그 세상에서 교회로 도망쳤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종말론적 심판의 재앙에서 도망치는 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히브리서 6장 2절에 낭송된 청중의 교리 문답의 두 기둥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인 회중으로 모여 그 심판의 날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구합니다.

이 본문의 부분은 저자가 이 맹세, 이 소망을 인용문으로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안전하고 확고한 닻으로, 예수께서 선구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셨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휘장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닻입니다. 이 두 개의 짧은 구절에서 저자는 닻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는 수신자들에게 하늘의 고향에 대한 확신을 그들의 삶의 고정점으로 여기도록 권유하며, 저자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암시했던 표류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소망은 그들의 닻이며, 현재의 폭풍 속에서 안정을 찾는 지점이며, 사회적 불안정과 소외에서도 안정을 찾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저자의 우주론과 매우 잘 일치합니다. 저자의 우주론에 따르면, 신성한 영역은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므로 창조된 이 흔들리는 영역에는 닻이나 확실한 고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정찰병, 주력 부대보다 앞서 가는 군인으로 묘사한 것은 설교자가 2장 9~10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딸 주력 부대보다 앞서 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의 운명으로 인도한 분으로 소개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가 간 곳에 많은 신자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희망만이 예수와 함께 그 안전한 장소, 휘장 뒤, 하나님의 실제 현존의 천상 장막으로 들어간 신자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믿는 이가 그 소망을 붙잡는 한, 그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선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자는 듣는 이들에게 그들의 이웃의 수용이나 지나가는 세상에서의 그들의 자리를 되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에서 그들의 안정성, 뿌리를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6장 20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설교자는 그의 설교를 5장 10절에서 멈춘 곳으로 다시 돌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장 18절의 길고 어려운 말씀의

주요 주제로 돌아가는 다리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맹세와 우리의 합당한 응답으로 확립된 신권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히브리서 5:11에서 6:20까지의 여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청중을 위한 저자의 수사적 의제를 발전시켰습니다. 5:11에서 14까지 저자는 청중이 따라야 할 기대를 제시하고, 청중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점점 더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의가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그들의 초점을 비기독교 이웃의 기대에서 벗어나 설교자뿐만 아니라 물론 설교자가 대표하는 메시지의 신에 대한 기대에 다시 집중시키는 전략적 방법입니다.

6:1에서 8까지 저자는 청중에게 다시 한번 그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행동 방침을 제시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그들을 연결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스럽고 순종적으로 사는 데 인내하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선물 주기와 응답, 은혜와 감사, 상호성에 대한 공유된 사회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지중해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드와이어링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유대, 그리스 또는 로마 문화에 거주하든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일부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감사할 만합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거나 불명예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논리, 거의 본능적인 윤리적 헌신을 활용하여 그들을 끈기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아낌없이 베푸신 데 대해 하나님께 나쁜 보답을 하는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합니다.

설교자는 또한 청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후, 청중을 확신의 원인으로, 특히 6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와 서로의 인내에 계속 투자하는 한으로, 다시 말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혜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설교자는 이 매우 적절한 여담에서 더 담론적인 모드로 돌아가 청중이 자신의 희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즉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맹세를 다시 암시합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 스스로가 여전히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영역으로의 진입을 확증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어떤 중요한 방식으로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저자가 5:11에서 14까지 청중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이론 것에 걸맞게 살고 믿음 안에서 자매와 형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도전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끊임없는 격려와 강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그릇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인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격려와 강화의 원천이 되도록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신이나 신앙, 기독교 신앙, 또는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매와 형제들의 형성에 비례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신에 대해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신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가져오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그 지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생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권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맺는 열매 사이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저자는 또한 우리 회중에서 새로운 회원들이 받는 가르침과 사회화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은 마치 히브리서 1세기 회중의 저자가 실행했던 것처럼 새로운 회원 수업을 위한 다소 건전하고 충만한 커리큘럼을 제시합니다. 그 교사들, 초기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은 개종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한 그 세계관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세계관에 대해 생각하도록 돕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설교자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회원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도록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의 기본적 윤곽, 신조가 잘 확립되고 잘 형성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야 하며, 그것은 이러한 새로운 회원들이 그들의 실천, 태도, 그리고 그들의 야망에 대해 영원히 생각할 수 있는 기초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의 목표, 실제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라고 매우 중심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탐구해 온 호혜성의 정신은 사회적으로 제한되거나 문화적으로 제한된 텍스트의 측면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정신을 그의 설교의 기초 논리의 구조에 짜넣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신약 저자에게서도 그것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5:15에서 이 역동성을 매우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 매우 대담한 진술을 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인용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썼는데, 이는 계속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의 적절하고 필요한 반응은 은혜를 받은 만큼 온전히 보답하려는 것이며,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즉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바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 계속 살고 남은 삶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신약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데 필수적인 한 가지 장소는 우리 자신을 믿음의 자매와 형제들에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 투자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자원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데 내어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저는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거나 확실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불법이지만 효과적인 폭도 폭력의 희생자가 되거나, 더 제한적이고, 단독적이고, 일대일 폭력 행위의 희생자가 되거나, 심지어 국가가 지원하는 박해의 희생자가 되는 나라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저자는 교회라는 세계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랑과 봉사의 일에 계속 투자하고, 자매와 형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계속 봉사하며,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위대한 후원자를 섬기라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의 이 부분의 마지막 구절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닳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통 기도서의 사순절 다섯 번째 일요일을 위한 기도문은 이 기도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세상의 빠르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곳에 확실히 고정되게 하소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에 마음을 고정하고 이 삶의 변화와 기회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기초를 만들고, 우리보다 먼저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신 예수님과의 연결을 만들 것을 촉구함으로써 이러한 기도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현실 세계라고 생각하도록 점점 더 격려받는 우리에게 계속 도전이 됩니다. 저자는 사실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상기시킵니다.